

여수수협, 어업인 안녕·풍어 기원 초매식

전국 제1 수산도시 영광 재현 다짐

남해안의 대표 수산도시인 여수시가 어업인의 안녕과 수산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2014년 초매식’을 가졌다.

2일 새벽 5시 여수수협 대회의실과 위관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해 김형주 여수수협장, 김성곤·주승용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초매식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수산인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 고사제, 풍어요새기 계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조기·갈치·아귀·민어·서대 등 기선자이망 어선 8척이 수확한 7000만원 상당의 어획물에 대한 초매 위판이 열렸다.

김충석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 여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산업의 발전에 매진하는 지역 수산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전국 제1의 수산도시 영광을 재현하고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굳히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지역 수산물 위관량은 3만4000여t, 위관액은 1488억여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3만1700여t을 수확, 1300억여원의 위관실적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여수시는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억원을 들여 신월동 하수종말 처리 시설 설치 이후 가막만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자원 회복 방안 역량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국내



2일 새벽 열린 여수수협 초매식에서 김형주 여수수협장 등이 풍어요새기를 계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러시아·중국·일본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여수 수산물 판매장을 개설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수협은 지난 1924년 어업조합 설립 이후 매년 1월 초 초매식을

치러오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순천 봉화산 ‘도시산림공원’ 이달말 완공

전망대 설치, 초화류 단지 조성 교육장 활용

순천시 도심에 있는 봉화산에 ‘도시산림공원’이 들어선다.

순천시는 2일 “2010년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 2012년 8월에 조성을 시작한 봉화산의 ‘도시산림공원’ 조성 사업을 이달 말에 완공한다”고 밝혔다.

모두 8ha 면적에 조성한 봉화산 도시산림공원에는 들레길과 연계한 전망대, 훼손된 급경사지 식생 복원을

위한 감판 계단,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했다.

특히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신년 해맞이 장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각종 기념일을 맞아 개인과 가족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념식수 공간인 ‘탄생의 숲’을 조성해 공원과 시민 개개인의 삶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계절 꽃을 감상하고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초화류 단지’를 조성해 어린이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가까운 봉화산에 또 다른 명품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3대가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완공 후 시민의 삶과 연계한 이야기를 엮어 고품격 시민치유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보성 득량면사무소 기공... 내년 5월 준공

보성군은 2일 “최근 지역주민과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득량면사무소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1989년 건립된 득량면사무소는 건물에 균열이 가고 우천 시 빗물이 새는 등 안전 문제와 함께 회의실, 사무공간 등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

아왔다. 이에 따라 군은 27억원을 투자, 청사 신축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 설계가 완료됐다.

득량면 청사는 내년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득량면 옹봉리 908번지인 현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74.57㎡로 본동(922.51㎡), 창고(152.06㎡) 등으로 구성된다./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북

군산 새만금에 ‘차이나밸리’ 들어선다

2020년까지 산업·주거·상업기능 갖춘 26km² 규모 융복합도시 조성

군산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들어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의 경제 수석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쉬샤오스(徐紹史) 주임과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새만금 차이나밸리(가칭) 조성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이 있는 25.8km² 규모의 융복합도시를 개발하게 된다.

부지는 분할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매립,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권한을 갖게 되며, 중국 독자 기업과 한·중

합작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따라 2020년까지 제1단계 차이나밸리 조성을 마치고 2020년 이후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성안은 정부가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번째 사례다.

새만금개발청은 이곳에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중국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태양광, 바이오 분야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국내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도.

구체적인 개발 방안이나 유치 업종 등은 올 상반기 중 국장급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논의해 정하게 된다. 이어 3분기 중 개발을 주도할 기업을 추천하고 4분기까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국으로선 경험단지를 통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장벽을 피하고 ‘한국산’이라는 브랜드가치 제고 효과를 주는 생산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일본(부품·소재 등), 인도, 미국 등과도 새만금에 국가별 경제특구를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참여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참여 기업에 대한 세금이 경감된다.

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특구에 창업하는 기업과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 참여기업과 시행자가 사업에 직접 이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업 등부터 적용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법인 통과로 기업 참여의 활로를 찾아 박람회 사후 활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새 일 글

“체계적 물관리... 농어민에 최상 서비스”

윤 석 군 농어촌소 순천광양여수지시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로 지역 농어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윤석군 제9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시장이 2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윤 지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농어민을 위해 공사가 존재하는 만큼 농경의 최일선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함평 출신인 윤 지사장은 조선

대 토목공학자, 전남대 생명과학대학 수문학(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전남대 생명과학대학 겸임교수(수리 수문학)를 맡을 정도로 공사 내 ‘학구파’로 분류된다.

지난 1986년 농지개발조합연합회에 공채로 입사해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지역개발팀장, 전남 지역본부 환경사업팀장, 사업계획팀장, 기반관리팀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단 신

순창, 민원처리 주민 만족도 92.3%

순창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하반기 민원처리 만족도가 상반기보다 5.6% 상승한 92.3%로 조사됐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민원실과 읍면 사무소를 방문한 고객 30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정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은 민원처리 친절도·공정성·신속성·전문성 등 만족도와 불편 및 개선사항 등 16개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했다.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간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난방 시설 및 휴게시설 등 민원실 개선 등이 꼽혔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7일~4월30일까지 천변로 차량통제

정읍시는 2일 “호남고속철도 노반 시설 및 천변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 천변로 차량통행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전면통제 된다”고 밝혔다.

시는 천변로 S자 형태를 직선형으로 개선해 연장 80m 4차로의 지하차도로 개설, 오는 4월30일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천변로가 완전개통될 때까지 우회도로인 서연지 지하차도를,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정읍시내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정읍IC 대신 태인IC, 내장산IC를 이용해 졸 졸길 각각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애향장학숙 내달 개관... 입학생 접수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남원지역 학생들의 요람이 될 서울 남원 애향장학숙이 오는 2월 말 예정대로 개관한다. 남원 장학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68명을 수용하는 규모다. 지하철 보문역에서 도보로 2분여 거리로 최적의 교통여건과 다양한 면학시설을 갖추고 있다.

남원 장학숙 입학생 선발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다. 입사지원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입학생 선발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과학대 한서운씨 안경사시험 수석

전북과학대는 2일 “안경광학과 한서운(2년)씨가 최근 치러진 안경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2년의 짧은 교육기간을 마친 한씨는 2175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 3~4년제 대학 출신자들을 따돌리고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전북과학대는 지난 2005년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도 전국 수석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다.

전북과학대는 1995년 전북 정읍에 문을 연 전문대로 안경광학과, 디자인과, 호텔조리영양과 등 16개 학과를 두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변산반도 노랑붓꽃 군락지 보호구역 지정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노랑붓꽃(사진)의 군락지가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됐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2일 “부안

군 서서면 청림리 일대 노랑붓꽃 서식지 11만2519㎡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랑붓꽃이 자생하는 이 지역은 2032년까지 20년간 사

람의 출입과 차량 통행, 탐방객 수제한 등 보호활동 대상지로 지정됐다.

노랑붓꽃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분포하는 특산식물로 내장산과 변산반도에서만 서식이 확인됐다.

/연습뉴스

순창군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해 추진 중인 강천산 관광휴양단지조성사업이 올 4월 착공된다.

순창군과 한국 농어촌공사는 2일 “지난 27일 농식품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실시계획에 착수해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도록 팔덕면 청계·용산리 일대 20만5128㎡의 부지에 38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